웅녀熊女에게

김 종 위원
광주중재부

사랑이 기도가 된 땅에서는
형벌도 지고지순한 축복이었으니
오천년의 눈물 그렁한 전설이 흘러서
산을 움직이고 물길을 바꾼다

한사코 아니라 아니라 했으나
하늘을 여는 일은 언제나 폭설이었다
손 모아 쌓아올린 하늘 닿는 돌탑이었다
싹터서 숲을 만든 씨앗들의 간절한 노심초사였다

내 진즉,
씨앗 같은 조선의 어미가 되고 싶었다

하늘에 무릎 꿇어 수태한 지난밤은
조선의 억조창생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
내 벌써 맵고 독한 사랑을 앓았느니
폭설의 장막에도 연모의 눈빛을 들키고 말았다

이십 날 하고도 하루라는 물을 건넜다
눈보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
萬年세월 조선을 분만할 수 있었다

아무리 차갑고 사나운 북풍한설인들
태중 아기의 발길질을 어찌 막으랴
생살이 찢기고 육천 매듭에서 움트는 고통은
박달나무 푸릇한 아기가 태어나는 일
세상을 꽃피우고 향기 짓고 열매 맺는 일이었다

태백산 같은 오천년은 거룩하고 장엄했다
눈물은 마늘로 크고 눈보라는 쑥 잎으로 나풀거렸다
마늘과 쑥의 몸에서
만년세월을 거느린 영웅이 자랐다
말갈기 날리며 지평선을 달리고 산맥을 넘었다

아사달의 사직은 사시사철 배가 불렀다
더불어 바람과 비구름이 백성을 돌보고 산천초목을 길렀다

큰곰자리 별에서 콩 한 동이를 불리고
환웅의 높은 하늘에 가득 뿌렸다
끝날 줄 모르는 그리움과 오랜 세월 사귀면서
가슴이 빠개지고 허리가 휘도록 별을 뿌렸다
발톱이 갈라져 나무뿌리가 될 때까지
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울었다
오천년을 맞닥뜨린 거친 바람과 맞 샅바를 잡았다
젖 먹던 힘이 산을 움직인다 물길이 바뀐다

나, 이제
오천년을 살아낸 박달나무로 서서
말발굽소리 우렁찬 나라의 시작을 다시 낳으리라
처음이 끝이 되고 끝이 처음이 되는
대문 넓은 오천년의 하늘을 새롭게 열치리라.

약력

-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(1976)
-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(문학박사)
- 조선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
- 광주문인협회장, 광주문화재단 이사 등

- 신동아미술제 대상, 민족시가대상, 광주시민대상, 새천년한국문학대상, 영랑문학대상, 펜문학상, 한국가사문학대상 등 수상
- 대한민국 문화훈장 수훈(2013)

- 시집「장미원」등 10권, 저서「전환기의 한국현대문학사」,「바다는 방패가 있다」,「한밤의 소년」(역서) 등 9권